

### 30년 포교 노하우로 미래불교 씨 뿌려요

‘포교의 대모’로 불리는 성일화성·선홍사청소년수련원장 스님이 최근 <청소년 포교지침서> (불광)를 끝으로 ‘포교지침서 시리즈’를 완간했다. 이 시리즈는 성일 스님의 포교 경험체라 할 정도로 30여 년의 포교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청소년 수련원을 개원, 27년 동안 새싹불자들을 위해 법회, 수련회 등을 개최해왔지만 스님의 포교 영역은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폭 넓다. 스님이 펴낸 포교지침서 시리즈는 94년 내놓은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불광)를 비롯 <신도 포교지침서> (상·하, 불광), <청소년 포교지침서> (불광) 등 모두 3종이다.

—포교지침서 시리즈를 내게 된 이유는.

“포교는 불교의 밝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일이다. 지금 포교를 하지 않으면 불교의 내일은 보장받을 수 없다. 이 포교지침서 시리즈는 책을 내겠다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포교를 하면서 얻은 좋은 프로그램을 나 혼자 갖고 있기는 아까워 시작했다. 책이라고 보다는 포교현장에서 건져올린 자료 모음집이다.

—이번 <청소년 포교지침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난 27년 동안 청소년 포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포교현장에 쏟아 부었던 결과물들이다. 청소년 법회를 이끄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실례, 놀이문화 등 수련법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포교에 대한 올바른 체계가 확립되고, 청소년들이 부처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포교에 뛰어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수련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보낸 ‘좀 더 일찍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면 살인죄를 짓지 않았을텐데...’ 라는 내용의 참회 편지를 받고부터다. 그때 부처님께 서원했다.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은 포교에 전념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불교는 다방면의 종교다. 교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 지라도 전하는 사람의 방편이 잘못되면 그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 근기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실시하면서 절실히 느꼈다. 새싹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극이다. 이번 겨울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연극이다. 조만간 불교성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및 춤극 대본을 책으로 묶어낼 생각이다. 청소년들이 싫증내지 않고 부처님 품에서 즐겁게 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청소년 포교라고 생각한다.

김종근 기자

## “대승불교 생명은 끝없는 혁신”

‘서양학자가 본 대승불교’ 윌리엄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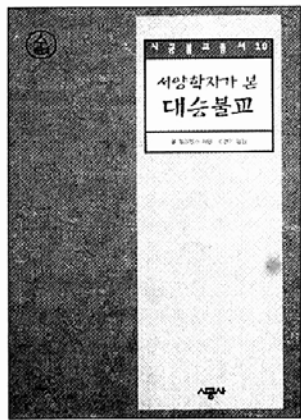
대승불교의 여러 측면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연구와 저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적 깊이는 아직 갈음마 단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아기적 단계에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서양불교학자의 대승불교에 대한 학문적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출간된 <서양학자가 본 대승불교> (시공사, 조한기 옮김)가 그의 구실을 풀어준다.

이 책은 서양의 불교학자가 쓴 대승불교 개론서다. 글쓴이는 영국 브리스톨대학 종교학과 인도-티베트 철학교수인 폴 윌리엄스. 그는 인도 대승불교의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탐구한다. 그는 연구 초점을 대승불교의 탄생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중국 티베트 일본의 사상과 역사에 맞추고 있다.

글쓴이는 대승불교 형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원에 대한 기존의 확신은 뒤엎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대승이 재가 중심의 사상이 아니라 승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라모트, 쇼렌, 히라카와 등 동서양 학자들이 논문들을 일일이 분석하면서, 초기의 여러 대승 경전들이 재가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대승의 재가 기원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스님들에 대한 비판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전에서 재가자를 등장인물로 채택했지만, 대승경전들은 분명히 출가 스님들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주장은 교리적 혁신도 스님



교리-수행 접목 개론서 깊고 예리한 분석 눈길 “대승불교 뿌리는 승가”

들이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가자들의 대승운동을 스님과 같은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불탑 숭배 등 신앙적 차원에서의 재가자들의 큰 영향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지혜와 자비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핀다. 지혜의 부분은 반야부와 중관, 유식, 여래장 사상이고, 자비의 부분은 <화엄경>, <법화경> 등 정토 계통의 경전과 불·보살을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한 권의 책에 담아가기가 무모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승 경전과 논서를 보

기 전에 큰 흐름을 잡아주는 튼실한 다리 역할은 충분히 해낸다.

이처럼 이 책은 대승불교의 개념들과 최근 이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토대로 대승불교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교의 가르침이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봤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불교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얻은 바를 현실에서 실천하게 하는 종교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전의 대승불교 관련 책들은 교리와 수행을 별개로 취급해 왔다. 하지만 이 책은 불교의 이론과 수행을 접목시켜 설명한다.

글쓴이의 수행론은 티베트 불교의 수행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태국이나 미얀마 등 남부불교의 수행 센터에서 수행한 사람들이 불교의 구체적인 수행이론들을 정리하여 낸 책들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남부불교와 다른 티베트 문화권에서 자란 대승불교의 이론과 수행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티베트 수행론은 우리가 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남이 아닌 관계에 있음을 자각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의 강점은 서양불교학자의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력으로 독자들을 압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끊임없는 대승불교의 자기 혁신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hapia.com)

### 마음 있으면 부처되기 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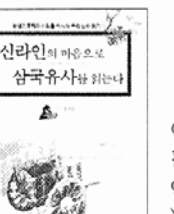
법성 스님 ‘첫마음을...’ “조발심을 잊지 말자. 출가자는 고고한 자세를 낮추고 보다 적극적인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품어야 하며, 재가자들은 불성을 회복하여 삶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법성 스님(87·성리원 이사장)이 <첫 마음을 잊지 말자> (지혜)의 나무를 내놓은 이유다. 한마디로 이 책은 첫 마음(조발심)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는 원로 비구니 스님의 바람이 녹아 있는 이야기법문집이다.

이 책은 크게 ‘삼계에 법이 있으니’, ‘공(空)을 실은 큰 수레’, ‘회향발원심’ 등 3부로 나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옛 선사들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옛 스님들의 법문과 법성 스님의 법문 등이 책의 두께 이상 가득 담겨 있다.

스님은 말한다. “마음 한번 들리면 거기에 극락이 있다. 우리를 생각의 밑자리에 깨달으려는 마음만 두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참나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부처되기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이 책을 펴낸 진짜 이유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 우리문화 원형찾는 역사산책



‘신라인의 마음으로...’ 원효 스님의 회향사상을 바탕으로 ‘회향 기호화’이라는 새로운 인문학 이론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던 문화비평가 이도홍(한양대 강사) 씨가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를 내놓았다.

이 책 역시 회향기호화 이론을 <삼국유사>에 적용, 우리 문화 원형 찾기를 시도한다.

그렇다면 글쓴이는 어떻게 <삼국유사>를 분석했을까. 우선 <삼국유사>를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반영상’과 ‘굴절상’으로 나눈다. 반영상은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한 부분으로 역사적 자료와 유물 등을 바탕으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당시의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논리를 <삼국유사>에 대비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풀어간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이론 집게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절음 기차게 잡히는 법	정 권	북극의마을
3	산사에서 부처는 편지	명 정	좋은 날
4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5	그들은 마음을 보고 있었다	세 등	문학동네
6	선, 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컬처라인
7	불교 신행의 주춧돌	우 용	효림
8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공양
9	만행-하버드에서 회개사까지	현 각	열림원
10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성우 지원	민족사

도서 안내: (02)737-0695

### 대기업 일으켜 돈 번 스님의 성공담

‘비즈니스의 달인 붓다’ 로치 지음

<비즈니스의 달인 붓다> (중앙M&B)는 ‘부처의 지혜로 경영 위기를 타개하자’는 책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 놓고 깨우침만 요구하는 책은 아니다. 글쓴이는 이 책의 주인공이자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미국인 스님 게세 마이를 로치.

스님이 ‘붓다식 경영’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낯설다. 하지만 그것은 훌륭한 스님은 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다. 물론 글쓴이도 처음에는 ‘속세에 나가 수행생활을 계속하라’는 스승의 권

유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갖 유희와 번뇌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스승의 깊은 뜻을 깨닫고 지난 81년 앤디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17년 만에 작은 회사를 설립, 대기업체로 성장시킨다. 치열하게 일해 많은 돈을 번 스님의 성공비결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고대 티베트 선지식들의 지혜를 조화시켜 마음을 비우고 부를 나누는’ 경영원칙을 실천한 것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은 ‘비움’이다. 이기심과 집착에 사로잡히면 어



떤 일도 이룰 수 없다.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마음을 비우고 무리한 욕심을 버려야 올바른 사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비즈니스의 달인 붓다>는 최악의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은 돈을 굴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대신, 멀리 내다보고 큰 부를 창출하는 경영 마인드를 심어 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불가인생론



공명을 구하면 공명을 얻고,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으며 아들이나 딸을 구하면 아들이나 딸을 얻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 이제 부처가 되어 삼계에 득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마음의 뜻이다.

### 지장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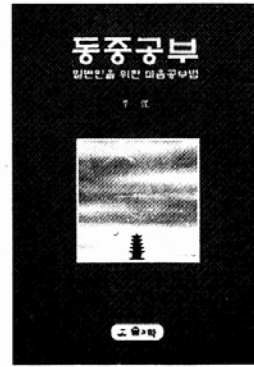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혹시 집안에 원한을 품고 죽은 영가가 있으면 하루 빨리 원한을 풀고 죄를 참회해야 업장이 녹습니다. 영가의 장애로 병명도 없이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는 영가의 장애가 걸려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 관세음기도법



진실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기도가 성취 될 것이고, 거짓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가까운 시간만 보내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죽을 고비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 동중공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여 합니다. 수승한 사람은 한 달이면 족합니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습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그때마다 관찰한다면 최소한의 행위로 줄어듭니다.

### 아미타불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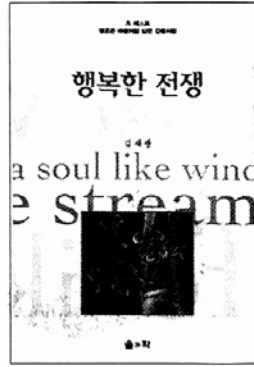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중생이 생사문회하는 삼계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히 안락한 복지(福祉)로서 시간 공간과 인과율을 초월한 경계이며, 우리 중생이 필경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수행으로 업장이 소멸 할 때 우리 스스로 보고 느끼고(感見)누리(受用) 상주불변(常住不變)한 법락(法樂)의 경계입니다

### 환생을 위한 기도



“태어난 인간은 늙지 않을 수 없고, 늙고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전은 말씀 하신다.

### 행복한 전쟁



나의 모든 육신과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과 하나됨을 위해 사랑과 믿음을 불사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삶의 어두운 적막감을 사정없이 부수버리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 돌진한다. 지치지 쓰러져도 일어서고, 일어서며 마음과 영혼은 극락을 향해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극락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시를 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도를 위해서...

### 도서출판 슬 과학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9-10 센썬리오피스텔 1110호  
전화 : 02-876-4655 팩스 : 02-876-4656  
핸드폰 : 011-9075-9787